

한승홍 / 장신대 교수

박윤선의 신학사상(Ⅰ)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박윤선은
성서적
기초 위에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여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이런 신앙
형태에 따라
한국교회의
기독교 이해를
정립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다. 이 등불을 높이 들어서 넓게 비추는 신학운동이 올바르게 전개되어야 성경의 권위를 바로 증거하게 되며, 또 성경의 내용을 바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운동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하다.

1984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바른 증거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교리 선포는 개혁주의 교회(장로교회)의 핵심이요 생명이다.

“교회개혁의 성업과 교리문제”(1984)

I. 머리말

정암(正岩)박윤선(朴允善) 박사의 삶과 신학사상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흡수한 제자들은 그를 가리켜 한마디로 “성경의 사람”이라고 부른다.¹ 정암에 대한 이러한 호칭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가리켜 그가 「기독교강요」(Institutio Christiane Religionis)를 집필했고, 이 책이 개혁주의 신학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시비를 떠나서, 그가 이러한 칭호를 받을 만큼 한국신학사상 형성에 어떤 형태로든지 깊은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의 신학을 만들어가면서 그가 받은 청교도적 신앙생활과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한국신학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으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그의 신학사상을 전수함에 전생애를 바쳐 일해왔다. 아니 이러한 것은 사실 한국신학계 일각에서 그에게 떠맡긴 과제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가 나서야 했고, 감수해야 했던 주어진 과제는 성서적 기초 위에서, 특히 개혁주의적 성서관에 입각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여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이런 신앙형태에 따라 한국교회의 기독교 이해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암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는 사업이었으며, 한국 정통보수주의 교회를 위해서는 그들의 흔들리는 터전을 더욱 견고히해야 할 새로운 당위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선교 50년을 맞는 희년(1935년)을 기점으로 성서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신앙분열과 신학논쟁의 시대를 열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 결국 한국교회의 분란은 성서를 어떤 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유주의적—현대주의 신학노선과 보수주의적—정통주의 신학노선으로 갈라졌다.

한승홍 / 연세대 신학과와 같은 대학의 연합신학대학원 및 원혜대, 튀빙겐대에서 공부했고, 이켄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장신대 교수이며, 「문화종교학」 「기독교 교육 철학사상」 등의 책을 썼고, 「20세기 종교사상」 「20세기 사회사상」 「사회철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번역했다.

박윤선은 한때 자신을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파수꾼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전통을 파수하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성서에 대한 이해에 따라 신앙양태와 형태, 신학입장과 노선이 결정되고, 이런 과정에 연관해서 교회의 입장이 정해지는 와중에서 우리는 성서는 신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 교회의 모태라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정암신학은 “성경신학”이며, “주경신학”이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 100년사에서 3대 주석가의 한 사람이며,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위해서 주경사업에 40년을 몸바쳐 온 그의 삶은 곧 한국 정통보수주의 신학의 반세기를 대표하는 역사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신학이란 성서해석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다. 성서해석은 신앙적이어야 하며, 신앙고백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때 박윤선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열을 쏟은 신학자는 한국신학 100년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관심은 두가지였다. 첫째는 칼빈주의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신앙전통 안에서 성서의 영감설과 무오류성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신앙전통 위에서 그의 신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박윤선은 한때 자신을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파수꾼(把守)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전통을 파수하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전통의 파수, 신앙의 파수, 신학의 파수를 역설하였고, 철저한 성서적 근본주의 신학에의 접지를 통해 보수신학을 파수했다. 이처럼 그는 개혁주의적 신앙관에 근거를 둔 정통보수주의적 신앙에 충실하려고 평생을 애써왔던 것이다.

한국 최초로 신구약성서 66권을 주석·완전한 성서 주석가 박윤선에 있어서는 성서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신앙만이 신학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모든 신학사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서를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오류한 것이라고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서란 단지 히브리 민족의 민족사를 서술한 신화, 민담, 전설, 역사, 문학 등의 문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결단에서 야기되는 신학문제이다. 요컨대 신학문제는 신앙이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 대한 이해문제가 신학문제이고, 신학문제는 신앙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는 삶의 전체가 투입되는 결단의 문제이므로 주장자들의 삶, 곧 생애를 통한 신앙이해를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암의 삶과 신학사상을 평전적 방식으로 분석·연구하며 한국신학계에 끼친 그의 영향을 평가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 작업은 한국 주경신학의 거목이며, 그의 그늘 밑에서 안식처를 찾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큰 의미를 줄 것이다.

II. 박윤선의 생애

정암 박윤선은 1905년 12월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 장평도 351번지 해변가 빈농가에서 아버지 박근수(朴根秀)와 어머니 김진신(金眞信) 사이의 2남 3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유교가풍에 젖어있었다. 마을에 교회가 없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의 부모는 불신자였으며 그 자신도 어린시절에 예수를 모르고 자랐다.² 더욱이 어머니는 철저한 반기독교인이었으며, 박윤선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녀

그의 어린
어린시절의
추억 속에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았다.
충명하고 영특한
소년이었으나
마음껏
먹지 못한
배고픔이 쓰라린
추억으로
남아있다.

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 반면에 아버지는 매우 인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남을 돕는 일을 즐겨했던 부지런하고 소박한 농부였다. 본래 박씨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며 가난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박근수의 근면과 노력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살아가는데 근심을 덜었으며, 당시 조선의 소농인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형편에서도 가난하나 소농의 생활은 꾸려나갔다.

나의 부친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사람으로써 극히 가난하였으나 그 노력에 의하여 중산 계급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아버님은 비록 불신자이긴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셨고 매우 선량하여 이웃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다.³

아버지는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만은 아니었다. 그는 생각이 깊었으며, 특히 윤선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았다. 그 자신 배운 것이 없는 촌부였기에, 배움에 대한 그의 한울 아들 윤선을 통해서나마 풀어보려고 했다. 대리만족의 충동같은 것이 그의 가슴속 깊이에는 항상 도사려 있었고, 강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윤선이 9살 나던 때에 동리서당에 입학시켰는데, 당시 서당은 동리에서 부자집 자녀나 어느 정도 가풍도 있는 집의 자제들이 와서 글공부하던 곳이었으므로, 소농인의 아들 윤선의 입학은 예외적이었다. 서당에는 부자집 아이들이 많았으나 윤선은 이들과 어울리며 항상 최우등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한학에 전념했다.⁴

나는 9살 때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근면히 공부하였는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거의

다 암송하였다. 저녁이 되면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서 글을 암송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놀랄만한 기억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서삼경의 본문만 아니고 주해(註解)까지 암송하였던 것이다.⁵

나는 서당에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고된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을 위하여 소를 팔아 먹이는 노동일을 하였다. 서당에서 하학하면 즉시 산야에 내다 매었던 소를 풀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던 생각이 지금도 머리에 떠오른다. 그뿐만 아니라 7~8월경에 방학이 되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낙지나 망둥이)를 잡아서 혹 팔기도 하고 가난한 우리 가정에 반찬으로도 해먹었다. 그때 서당으로 말하면 그 동리에서 비교적 잘 사는 사랑방을 교실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자라는 아니지만 한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늘 최우등으로 인정되어 선생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특별히 장문(주로 한문시를 지었음)에 있어서 언제나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⁶

그러나 어린시절의 추억 속에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많았다. 충명하고 영특한 소년 윤선은 점심 한번 마음껏 먹어보지 못한 배고픔이 훗날에도 그의 머리 속에 쓰라린 추억으로 맴돌고 있었다.⁷ 빈농가의 어려운 형편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형님은 늙음에 손을 대어 가세가 더욱 어려워졌고 착하고 근면했던 형이 도박꾼이 되면서 타락하고 게을러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다.⁸ 그러니 집안에서는 식량이 넉넉치 못할 뿐 아니라 도저히 평범한 일상생활이 힘든 형편이 계속되었다. 그는 어린시절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박윤선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나라잃은
이 강산에
근대화의 길을
개척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기독교의 활력,
곧 기독교정신
이었다.

부친이 농사를 하시던 광경을 생각해 볼 때
기억에 떠오르는 몇가지 사건이 있다. 내가
서당에 갔다 와서 점심을 찾았는데 너무 가
난해서 급히 음식을 마련할 수 없어서 부친
이 농토에서 맨발로 들어오시더니 뒷 집으
로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다가 나에게 준 기
억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다.⁹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는 하던 일
도 놓아두고 달려와서 보살필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박윤선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나라
잃은 이 강산에 근대화의 길을 개척하며, 복음
의 진리를 전파하는 기독교의 활력, 곧 기독교
정신이였다. 그가 태어나던 해인 1905년 대한
제국은 을사조약의 체결로 명목상의 국가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주권없는 일본보호
국의 형태로 전락되어 암울한 시대가 조선반
도에 밀려오던 시기였다. 고종황제는 이름만
의 황제로서 실권없는 권좌에 앉아있었으며,
실제로 조선의 통치는 이등통감(伊藤通感)이
지배했던 것이다.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팽창정책과 군국주의의 거센 군사적
힘 앞에 한국은 상징적이며 형식적인 국가이
름마저 지구상에서 영원히 잃어버리는 국가의
비운에 처하게 되었다. 을사 5적의 친일행위
와, 한일합방을 조인한 조선 대신들의 매국행
위는 한국인의 저항정신과 나라를 빼앗긴 백
성의 울분을 증폭시켰고, 좌절하는 한편의 무
리들과 저항하는 또 한편의 무리들이 한국의
꺼져가는 국가운명을 위해 애국의 형태로 힘
을 찾아 모여들던 때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한국의 기독교는 신
앙운동으로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기독교에의
귀의는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

문화의 도입과 보급이 기독교를 통해서 확산
되면서 기독교는 곧 신문화운동의 중추적 역
할을 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므로 이때
는 누구든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개화되게
마련이고, 개화되면 신문화를 받아들이게 되
었다. 그러므로 신문화에 접하므로 말미암아
민족의식에 고취되는 때였다. 이러한 시대, 이
러한 땅에서는 누구든지 애국자가 아닐 수 없
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
체가 곧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가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애국자가 될 수 있
는 애국교육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22년 4월 17세의 소년 박윤선은 평북 선
천에 있는 대동소학교 6학년에 편입하여 그 다
음해에 졸업하였다. 학교는 집에서 80리나 떨
어져 있었으므로, 그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생활해야 했다.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보
리를 팔아 70원을 그에게 주었다. 그 외의 도
움은 줄 수 없었다.¹⁰ 고향 서당에서의 8년 동안
의 한학공부는 이미 그의 인생관, 세계관, 자
연관, 가치관, 도덕관 등에 대한 깊은 조명력
을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주와 진리, 그리
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동양철학적 통달의
경지에 이른 그가 소학 1년 과정에서 배울것은
오직 산술과 일본어 정도였다. 솔직히 산술과
일본어도 거의 자습으로 배운 것이었으므로
소학교에서는 거의 배울 것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해서 그의 동양사상을 통
한 사변과 의식, 그리고 인생론은 신학문만을
배운 학우들이나 신교육만 아는 세대와는 비
교도 안될 정도로 높고 깊은 것이었다. 오직 현
대 자연과학지식과 일본어 구사능력만 부족했
을 뿐이었다.

대동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다. 그러므로 매
일 아침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대동학교에 오
기 몇년 전부터 어머니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

선우 선생은 여성지도자로서 비범하며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훌륭한 분이었고, 그에게 사도행전의 신앙내용들이 오랫동안 인상에 남을 정도로 전해주었다.

하고 마을에서 15리 떨어진 이웃 마을의 교회에 다니기도 했던 그였지만 매일 아침 예배시간에 듣는 설교는 아무리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그때까지도 그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교회도 나갔고, 기독교학교에서 예배에도 참석했으나 이런 행위는 신자의 삶이 아니었고, 오직 방관자적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구경꾼 신자였다. 박윤선은 다만 열심히 학교에 다녔으며,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으로 소학 1년 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쳤다. 그곳에서 그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김인현, 김경두, 김의홍, 정영엽 선생님과 특히 성경과목을 가르쳐주던 선우신경이라는 여선생님이었다.¹² 선우 선생은 여성지도자로서도 비범하며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훌륭한 분이었고, 그에게 사도행전의 신앙내용들이 오랫동안 인상에 남을 정도로 훌륭하게 전해주었다. 물론 신앙에의 뜨거운 체험과 헌신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던, 더욱이 아직도 유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박윤선으로서는 성서의 진리가 크게 그의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선생님들의 훌륭한 성도적 신앙은 그가 훗날 "성경의 사람"으로 한국 개혁신학의 거목으로 쓰여질 수 있는 생명력을 예비적으로 채워준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무의미하고, 별로 관심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이미 그당시 시시각각 그의 종교적 심성에 신앙의 건전한 싹을 심어주었던 파종의 때였다.

1923년 3월 그는 대동학교를 졸업했다. 집에서 80리를 떨어진 선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그의 살림은 집으로 옮겨야 했다. 이때도 아버지의 사랑은 넘쳤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지금도 한가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졸업한 후에 부친이 80리를 걸어서 나의 학교에까지 오셔서 나의 살림살이 짐을 친히 지시고 나와 함께 80리를 걸어가시면서 기뻐하시던 일이 생각한다. 가는 도중에는 나루도 건너는 바다가 있었는데 물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던 것이다. 부친은 항상 내가 학문에 작은 성공이라도 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해 하셨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농부로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형편이 못되었다. 내가 들은대로 그가 젊었을 때 천자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황치만이라는 사람의 지게와 바꾸었다고 한다.¹³

이처럼 생활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둘째 아들 윤선이가 더 많은 것을 배워 박씨가문의 글쟁이이며, 신교육을 받은 지성인이 되는 것이었다. 맏아들은 농사일을 함께 하며 농부로서 일하고 있었고, 더욱이 청년시절 정신 못차리고 노름으로 세월보냈던 것에 비하면 늘 서당에서도 최우등을 하고, 암기력도 뛰어나서 사서삼경의 주해까지 줄줄 외어대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가 큰 재목이었다.

한학을 배우고, 1년 동안 소학교 과정을 훌륭히 마친 윤선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는 윤선이가 장가도 들었고, 공부도 할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 없었다. 이제는 마을에서 일하는 것을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윤선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다. 배움의 신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소학교 생활 1년 동안으로 신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릴 리는 만무였다.

**신성중학 시절은
그에게
고학의
힘든 생활만
기억되게 하는
시절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일생의
방향과
삶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다.**

1923년 4월 박윤선은 대동학교 졸업 후 곧이어 정주 오산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2학년 1학기 말에 이구하 교장을 배척하는 데모가 일어나 방학식도 못하고 귀향하였다.¹⁴

그 다음해 그는 선천 신성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¹⁵ 신성중학교는 평북 선천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였다. 1906년 4월 18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와 한국인 양전백(梁甸伯), 안준(安濬), 김병농(金炳農), 김석창(金錫昌) 등이 설립하였고, 화이트모어(N.C. Whittemore) 선교사가 초대교장으로 취임한 뒤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던 학교였다.¹⁶ 배움의 길을 찾아 다시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25원밖에 줄 수 없었던 아버지는 매우 가슴이 쓰라렸다.¹⁷ 갓결혼한 새색시도 석별을 눈물로서 삭이며 그의 장도를 빌어줄 뿐이었다.

신성학교에서의 나날은 고학의 길을 가야하는 힘겨운 생활이었다. 집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그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학뿐이었다. 그는 온갖 일을 닦치는 대로 다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겹치기 노동도 마다할 수 없었다. 우유 배달, 김매기, 소먹이기, 변소오물청소 등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온갖 궂은 일을 닦치는 대로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고, 열심히 공부했다.¹⁸ 이때 그는 학우들로부터 “5분”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정한 시간 속에서 배움과 노동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형편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도 책을 읽어야 하고, 식사마저도 5분 안에 마쳐야 곧이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또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촌음을 아끼는 그의 철저한 시간관념이 친구들에 의해서는 “5분”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졌으나, 또 시간을 아껴야했던 절박한 5분이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시간에는 받아온 식사를 5분 안에 후딱 먹어치우고 다시 일하러 가거나 일 때문에 밀린 공부를 보충해서 메워야 했기 때문에 학우들은 박윤선을 “5분”이라고 놀려 대기도 했다.¹⁹ 그뒤 선천 YMCA에서 무산아동 교육사업에 교사로 일하며 학교를 마칠 때까지 월 6원씩 받는 생활비로 여유있는 중학학창의 마지막을 마쳤다.²⁰

신성중학 시절은 그에게 고학의 힘든 생활만 기억되게 하는 시절은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그는 그의 일생의 방향과 삶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박윤선이 있게 한 훌륭한 분들, 박평흠(朴平欽) 선생, 함가륜(咸嘉倫, C.S. Hoffman) 선교사, 김선두(金善斗) 교장 그리고 당시 며칠동안 학교 안에서 사경회를 할 때 강사로 오셨던 길선주(吉善宙) 목사 같은 분들의 인격과 신앙에 이끌리면서 그는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버릇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서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며 그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솔직히 진술했다.

그 시절에,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는 책들의

무교회주의

한승홍 지음 / 책값 1,800원

도서출판 두란노

송실대학 시절은
그에게
부부학생,
고학,
기숙사생활,
신앙성숙,
전도여행 등
여러가지
추억이 깃든
4년이였다.

계열 중에 성경을 놓고 그 중에 제일 나은 책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받은 그대로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만큼 그 시대의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물론 그 당시 교회의 성격이 순수하였다고는 생각된다.²¹

결국 박윤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차츰 그 진리의 절대성을 향해 걸어가야 했다.

선천에 머무는 동안 나는 주일마다 선천 북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였다. 그 교회를 담임하신 교역자는 양전백 목사님이었는데, 그는 본래 한학자로서 유교의 도덕이 그의 인격에 젖어 있는 듯 점잖은 분이였다. 그는 또한 애국자로서 천여 명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설교에서 깨달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나의 신앙이 어린 데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때(1924년경)는 아직 우리 교계에 성경 해석문헌이 전반적으로 출판되지 못한 형편이였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이나마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의 어두운 지각이 차차 열리게 되어 점차 신앙운동에 열중하게 되었다.²²

이 무렵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신앙 체험을 하였다. 어느날 나는 학교 가까이 수청고개 밑에 있는 시냇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나의 임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하고 자문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즉시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같이 솟아오른 것은, ‘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니라’하는 분명한 대답이였다. 나는 그 때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의심은 깨끗이 사라졌다. 그 후로는 성경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²³

1927년 4월 박윤선은 신성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송실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였다.²⁴ 그의 고향에서는 평양에 나가서 대학공부를 한다는 것만도 큰 경사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학인 아내도 배우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신성중학교 졸업반 때부터 아내를 선천 보성여학교에 입학시켜 부부학생이 된 형편이였으므로 송전시절의 고학은 사실상 부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였다. 그러나 학생으로 돈을 버는 길은 고학의 길밖에 없었다. 그 당시 그는 평양 시내 집집을 찾아다니며 청심환을 팔아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²⁵ 그후 모의리(牟義理, E.M. Mowry) 선교사의 소개로 평양 관영 철도호텔 종업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를 얻게되어 월 30원의 수입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메워가며 생활했다. 아내는 4년과정을 마쳤고, 박윤선은 좀더 지나서 송실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²⁶

송실대학 시절은 그에게 부부학생, 고학, 기숙사 생활, 신앙성숙, 전도여행 등 여러가지 추억이 깃든 4년이였다. 더욱이 이 4년이 의미있었던 것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벼를 사귀게 되었고, 그 우정이 죽음으로 그들을 나누기까지 아름답게 지속되었던 것이였다. 그는 한때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당시의 추억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그는
해마다
여름방학을
숭실대 전도대를
조직하여
이끌고
전국을
전도순회
하였다.

숭전 시절에도 신앙운동에 열중하는 중 특별히 4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운동에 힘을 모았다. 몇몇 동지들(이윤택, 송영길, 김철훈, 박기환, 김진홍, 방지일)과 함께 약 1시간쯤 걸어가서 모란봉 뒤 숲속에서 기도하곤 하였다. 우리가 기숙사에서 새벽 세시, 혹은 네시 경에 출발하여 기도처로 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에게 ‘조기부대’(早起部隊)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시절에 나는 기도에 열중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또 매우 힘 있게 기도하였다.²⁾

나는 기도와 전도의 은혜를 받아 열심히 나가는 가운데 4학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숭전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나는 모란봉 뒷동리에 있는 가현교회를 맡아서 주일마다 설교와 교우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일을 하였다(물론 무보수로 봉사한 것임). 그때의 나의 설교는 그 내용이 신학적 체계로 짜여지지는 못했지만, 그저 청년의 열정으로 쏟는 성경선포였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도 나는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성경관을 가졌던 것이 기억난다.³⁾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변화를 그 스스로 체

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대동학교시절 예배시간마다 “사실상 복음을 깨닫고 믿은 것은 아니고 그냥 깨달음없이 설교를 들었던”⁴⁾ 그가 숭전학생 시절에는 이미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입을 통해서 기도의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것은 분명하나님이 선택한 징후였다. “기도에 열중하면 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말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또 그말이 매우 힘이 있었다”⁶⁾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붓물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여름방학을 숭실대 전도대를 조직하여 이끌고 전국을 전도순회하였다. 설교는 그가 항상 말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믿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을 힘차게 외쳤다. 금식하며 집회준비를 하고, 말씀전파를 하는 것을 보고 전도대를 맞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놀라워했던 것도 그의 신앙열기가 점점 뜨겁게 달아 올랐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⁷⁾ 그의 순수한 행위와 청교도적 신앙에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어 활화산처럼 뜨겁게 그를 달구어갔다. 숭실대학은 그에게 기도의 친구들과, 신앙의 불꽃, 그리고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위대한 역사를 허가해준 소명의 시간이었다. 주님께 헌신을 맹세한 박윤선의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까

주(註)

1.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빛과 소금」 1988.8. p. 198.
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 p. 35
이곳의 생애편은 박윤선 목사가 「크리스찬신문」(1980.3.8~5.24)에 10회에 걸쳐 “나의 생애와 신학”을 연재한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3. “나의 생애와 신학”(1).
4. Ibid.

5. Ibid.
6. Ibid.
7. Ibid.
8. Ibid.
9. Ibid.
10. Ibid.
11. “나의 생애와 신학”(2).
12. Ibid.

평양신학교에서 그는 성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원어로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서원어를 철저히 공부했다.

운 것은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믿음을 배척했고, 심지어 심하게 박해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새사람되고,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곤 했다.

1931년 3월 박윤선은 숭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면서 곧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¹³ 3년 동안의 신학교 과정은 소명받은 자들의 목사훈련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매우 깊은 성서적 지식과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예수꾼들이었다. 당시 평양신학교 학생은 100여명이었다. “학생들은 새벽기도에 열심이었으며 기회가 있는대로 목회에도 힘썼다. 보통으로 신학을 공부하다가 1학기 정도는 중단하고 교회에 돌아가 목회를 하기도 했다.”¹⁴ “특별히 그때는 확실한 사명감 없이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었다.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그 결과 교계는 직업목사들(종교업자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교계는 갈수록 혼란하여지고 부패하여 질 수밖에 없다.”¹⁵

평양신학교에서 그는 성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원어로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무엇보다 성서원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공부했다. 신학의 도구과목은 성서원어와 외

국어이므로 박윤선이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그후 그가 한국 최고의 성서주석학자가 되는 예비길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평양신학교에는 나부열(羅富悅, Stacy L. Roberts)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었고, 교수로서는 마포삼열(馬布三悅, S.A. Moffett), 이율서(李栗瑞, W.D. Reynolds), 어도만(魚塗萬, W.C. Eerdman), 업아력(業雅力, A.F. Robb), 곽안련(郭安連, Charles A. Clark), 왕길지(王吉志, G. Engels) 등 외국인 교수들과 남궁혁(南宮赫), 이성휘(李聖徽), 박형룡(朴亨龍) 등 한국인 교수들이 철저한 근본주의 신학 입장에 서서 신학 강의를 했다. 그러나 박윤선은 신학교 3년 동안에 성서 과목에 흥미가 있고, 특히 성서주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방학 때마다 영어 성서 주석들을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시골 집에서 읽으면서 자력으로 성서의 진리에 점점 매혹되는 것 외에는 학교에서 큰 신앙의 발전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신학교 재학 중에 ‘칼빈주의(Calvinism)’란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교수들로부터 ‘성경신학’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성경신학이 없었던 그 시대에 교리들을 성경적으로 단맛있게 가르쳤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¹⁶

주(註)

13. Ibid.
14. “나의 생애와 신학”(3).
15. Ibid.
1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2), p. 192.
17. “나의 생애와 신학”(3).
18. Ibid.
19. Ibid.
20. Ibid.

21. 「성경과 나의 생애」, pp. 43~44.
22. Ibid., p. 44
23. Ibid., p. 44
24. “나의 생애와 신학”(4).
25. 「성경과 나의 생애」, p. 45
26. Ibid., p. 46.
27. Ibid., p. 46.
28. Ibid., p. 48.
29. “나의 생애와 신학”(2).

신학교
3년동안 그는
숭실중학교
사감으로
일했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가정방문을
해야했다.

나는 이때에도 3년 동안 신학교에 커리큘럼 대로 친구약 각 책에 대한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것과 영문 성경주석을 읽는 것으로 그쳤을 뿐, 자발적으로 간절히 성경을 상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의 권위 문제를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나의 영적 우둔함과 태만을 증거해 준다.³⁷

그러나 소명감에 불타던 그는 평양신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들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특히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배우면서 만족한 생활을 했다. 비록 스스로 성서를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신앙의 동지들과 선배들과의 교제 등으로 그의 신앙생활은 매우 활발했다. 그가 이곳에서 김인서(金麟瑞)를 만나게 되어 그와 교제를 가졌던 것을 보아도 그는 신앙의 동지들과는 연령의 차이를 넘어서서 같은 신앙노선의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³⁸

한동안 나는 모란봉 뒤에 있는 가현교회를 맡아서 주일마다 봉사한 일이 있었다. 신학생으로서 심방과 설교에 전력을 다했는데, 그때의 열심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열렬했던 것 같다.³⁹

신학교 3년 동안 그는 숭실중학교 사감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가정방문을 해야했고, 주일에는 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며 생활과 학업을 겸해서 해야 했다.⁴⁰ 신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주를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믿지않았다.

정암의 죽마고우였던 방지일 목사의 글을 빌려 박윤선가의 일화 한 토막을 여기 소개한다.

들은 이야기로는 박 목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그의 형님도 믿으시기에 상주 형제는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통곡을 하시며, 격분한 나머지 ‘나는 영감님께 아들 둘이나 낳아 드렸소이다. 그런데 이놈들이 정신이 빠져 아버지를 굶깁니다’하며 통곡하신 뒤, 그 자신이 아버님 사진 앞에 상을 차려 놓고, ‘아들놈들이 제 아버비를 굶기니 이럴 수가 있겠소!’ 하면서 다시금 통곡하실 때, 박 목사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그 사진을 슬쩍 가지고 나갔다. 이를 아시고는 식도를 들고 아들을 쫓아가시자 박 목사님은 수수발 고랑으로 피하였다고 한다.⁴¹ ㄹ

주(註)

30. 「성경과 나의 생애」, p. 48.

31. “나의 생애와 신학”(4).

32. Ibid.

33. “나의 생애와 신학”(5).

34. Ibid.

35. Ibid.

36. 「성경과 나의 생애」, p. 56.

37. Ibid.

38. “나의 생애와 신학”(6).

39. 「성경과 나의 생애」, p. 59.

40. “나의 생애와 신학”(6).

41. 방지일, “우리에게 있는 나다니엘—내가 본 박윤선 목사”, 박윤선 목사 생애50년 기념총 편찬위원회, 「경건과 학문」(서울:영음사, 1987), pp. 26~27. 박윤선 목사의 모친은 그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기독교를 배척하던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활동을 했다.